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9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목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주님의 증거를 위하여 다음 세대(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를 일으키소서 - 그들을 생명과 진리로 조성되게 하시고, 세상과 육체와 죄를 이기게 하소서 - 그들이 시대를 전환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이 땅에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3.10(목) 오전10시 산곡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

- ① 일 시 : 3.8(화)~5.31(화)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3. 인도네시아 전시간 봉사자 내방(19명)

- ① 일 시 : 3.10(목)~11(금)
- ② 접대 및 쉬임 장소 : 3지역(연수동 집회장소)
- ③ 쉬임 집회 : 3.10(목) 8시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전반기 전국 자매 은전하게 하는 훈련 안내

- ① 일 시 : 3.18(금)~20(주일)
- ② 장 소 : 성경전리사역원
- ③ 신청금 : 숙박81,000원, 출퇴금 29,000원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 ④ 신 청 : 집사실로 3.7(월)까지

2. 국제 현충일 집회 안내

- ① 일 시 : 5.27(금)~30(주일)
출국일 5.25(수)~6.1(수)
- ② 장 소 : 워싱턴 DC

◆ 2016년 2월 복음에 이르는 교통 현금과 심일조 현황

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7지역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복음 교통	7	1,550,000	28	2,670,000	29	2,360,000	19	1,120,000	25	2,820,000	9	490,000	5	290,000	122	11,300,000
심일조	22		30		44		41		28		22		6		193	39,031,300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2.22(월) ~ 2016.02.28(주일))

지역	1지역 (80명)					2지역 (104명)					3지역 (94명)					4지역 (123명)					5지역 (99명)					6지역 (69명)					7지역 (22명)					계					
그룹	요한	안드	바울	로마	도전	골로	디모	수마	수전	히브	야고	요한	요한	디모	가라	골로	디모	가라	요한	요한	히브	야고	요한	요한	디모	가라	요한	요한	히브	야고	요한	요한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요상	13	15	10	12	21	9	6	15	12	16	10	16	19	10	20	19	19	20	16	17	10	9	12	17	11	11	8	14	14	22	37	21	19	18	15	13	13	11	11	581	
기 도	7	3	2	7							2	6	4	5	11	10	7	11	11	10	9	6	5	3	9	3	5	2	7	2	7	16	10	7	6	6	4	5	3	7	218
그 룰	7	5	1	7	11	3	2				7	8	4	4	12	17	8	12	11	15	7	6	5	2	5	5	7	2	3	2	5	16	10	14	8	5	6	7	6	8	263
아침부흥	11	6	3	7	8	2															8	5								2	10	23	16	13	13	6	9	5	6	153	
어린이	11					16					11					26					14										9					87					
아베노스개						6					12																				6					24					
종교공부	8					4					14					12					18					10										66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3. 06. 16-10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금 향 단

히7:25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향 단의 위치

분향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이 메시지에 나와 있는 성막의 그림에 주시하기 바란다. 바깥뜰의 출구는 헤브는 쪽인 동쪽에 있다. 번째단과 물두멍은 바깥뜰 안에 있었다. 길이 삼십 규빗, 너비 십규빗, 높이 십 규빗의 견조물인 성막은 이십 규빗 곱하기 십 규빗인 성소와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십 규빗인 입방체의 지성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상은 성소의 북쪽에 있었고 등대는 남쪽에 있었다. 성막 전체의 축점인 법대는 지성소 안에 있었다. 그러면 분향단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성소에 있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분향단의 위치는 애매모호하다. 그것이 휘장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휘장 안에 있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분향단의 위치에 관하여, 구약과 신약은 언뜻 보기에 모순되는 말을 한다. 출애굽기 30장 6절은 분향 단을 '장 앞에 (before veil)', 즉 장 밖에 두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향단이 휘장 안쪽의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휘장 바깥의 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9장 4절은 지성소에 금 향단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나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표면상 애매모호한 것은 많은 요점들에 있어서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분향단의 위치에 관한 구약의 기록은 분향단과 증거 제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함축하고 있다. 증거 제위에 화해될게(속죄소)가 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더 붙어 만나신다(출 40:5). 둘째,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성경에 따르면, 열왕기상 6장 22절은 분향단이 내소(oracle)에 속했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내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곳인 속죄소를 가진 증거 제가 안에 있는 지성소를 뜻한다. 그러므로 구약이 먼저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했다는 것을 말했다(그것이 성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능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 제를 위한 것이었다. 속죄일에 분향단과 증거 제의 속죄소 모두에 속죄를 위한 동일한 피가 뿌려졌다(출30:10, 레16:15-16).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 35절은 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상과 등대만을 언급한다. 거기에서는 분향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셋째, 분향단은 기도와 관계된다(눅1:10-11)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히10:19)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 제위의 속죄소로 상징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임을 본다. 종종 우리의 기도는 성소로 상징된 우리의 혼의 부분인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로 상징된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모든 점들로 인해서, 히브리어의 저자는 분향단을 지성소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해야 했다. 히브리어 9장 4절은, 2절에서 상과 등대가 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금향단이 있다고 말한다. 이 관념은 히브리어의 전체 강조점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혼(성소로 상징됨)에서부터 영(지성소로 상징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

성막과 바깥뜰의 그림에 따르면, 법제가 축점이다. 그러나 사실상 실지적인 중심은 분향단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재의 생활이 신성한 실행, 즉 신성한 행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실행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하는 데 여러 가지 용어들-경륜, 행정, 실행, 분배, 움직임, 통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용어들은 동의어, 즉 같은 뜻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실행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할 일 없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목적의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움직이시며,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분배하시고, 행정하시는 분이다. 이 성막의 그림은 이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륜을 묘사하는 아주 정확하고 상세한 그림이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행정의 책, 신성한 집행의 책이다. 이 책은 우주 전역에 걸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행정을 계시한다. 그러나 사실상 집행의 중심은 보좌가 아니라 계시록 8장에 있는 분향 단이다. 계시록 8장 3절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한다. 이 단 위에서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스도의 향은 이 기도들과 합해진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의 정 책들을 집행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

성막의 그림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성육신 되신 하나님인신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고 우리를 내적으로 채움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모든 제물들이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향 단에 이를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분향 단은 성육신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막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단에 있는 것은 성육신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도 우리 안에 계신다. 바깥쪽의 단에서 우리는 제물들을 체험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와 내적으로 우리를 채우는 음식을 가진다. 이것은 우리가 성육신 되신 하나님, 즉 우리의 음식 곧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분향 단으로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아마도 당신은 분향 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천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다른데서 동떨어져 있으며,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없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분과 동떨어져 있다. 기도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바깥쪽의 단에 있는가? 아니면 성막 안에 곧 성육신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하

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야 한다. 그분께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셔야 한다.

향이신 그리스도를 태움

예표 론에 따르면, 분향 단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표시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분향 단은 향을 태우는 곳이며 향을 태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예표한다. 어떻게 우리가 분향 단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분향 단에 있으므로 우리는 향을 태워야 한다. 그러면 향은 무엇인가? 향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성막이시며, 제물들이시며 또한 향이시다. 그러므로 향을 태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이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말한다. 이 천사는 그리스도, 즉 성도들의 기도에 그분의 향을 더하는 분이다. 연기를 올라가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향이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는 연기를 올라가게 하는 향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 향을 태우는 것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임이 여기서의 요점이다.

만일 당신이 향을 태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임을 본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종종 기도했던 방법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것들을 기도했었다. 향이신 그리스도를 태우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향을 태웠다. 우리는 다른 향, 즉 그리스도 자신 외의 어떤 것을 드렸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향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과거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많은 다른 향이 있었다. 즉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다.

분향 단에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소제를 드려서는 안 되며, 또한 관제도 부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제물들은 첫 번째 제단, 즉 바깥쪽의 번제 단에 드려야 한다. 분향 단 위에 드려져야 할 것은 오직 향이다.

출애굽기 3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를 때, 우리는 향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제와 거제를 제외한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예표들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분, 즉 열납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신다. 향으로서의 이 향기가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적인 바와 같이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 M147-149에서 발췌>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움

요15:16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남은 열매를 맺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빠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무한한 인내와 그림 없는 중보 기도로 일 년에 적어도 하나의 남아 있는 열매를 얻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1986년과 1987년에 타이베이와 옌지카운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즉시 침례 받았지만, 그들 중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는 여전히 빠른 결과를 기대하고 그러한 결과를 보지 못하므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에 관해 낙심하고 느슨해 졌다. 이것은 우리가 증가를 가져오는 방식에 관해 합당한 이해가 결여되었음을 보여 준다.

활력 그룹의 실행을 통해 합당한 증가를 가져오려면 우리의 관념이 혁신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계시된 열매 맺는 길을 보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합당한 열매 맺음은 마치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는 매일 혹은 일 년에 여러 차례 열매를 맺지 않는다. 포도나무는 일 년에 한 차례 오직 정해진 계절에만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의 열매 맺음은 연례적이고 계절적인 것이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가지로서 우리는 일 년에 한 차례 남아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에 의해 택함 받고 가서 남아있는 열매를 맺도록 세움을 입었다. 열매 맺음은 우리의 운명이며, 매년 남아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강한 결심으로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느슨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 열매 맺는 계절이 오기 전에 포도나무는 놀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열매를 산출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한 종류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다(요15:4-5).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겪으면서 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계절이 오기 전에 여러 날 동안 고통 받는다.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많은 고통을 통하여 오직 정해진 계절

에 열매 맺기를 기대해야 한다. 둘째로, 남아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근면하게 수고하며 필사적이 고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상 두세 사람을 돌봄으로써 한 해의 마지막에 이들 중 한 사람이 남아 있는 열매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 수고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진보에 관해 염려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그들에 대해 수고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함 이 없는 인내로 누려야 한다. 우리는 활력 그룹이 많은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 합당한 증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합당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열매 맺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연말마다 우리는 하나나 둘의 남아 있는 열매를 얻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열매 맺는 길이다 주님께서 모든 활력 그룹 가운데 이것을 완전히 수행하시기를 바란다.

오늘날 우리는 목표뿐 아니라 방법도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목표뿐 아니라 방법도 주의해야 한다. 목표는 번식하는 것이고, 방법은 생명이다. 방법을 관심하고 번식의 법칙을 따른다면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삼십 년 전에 이 두 가지를 관심했었고 좋은 결과가 뒤따랐다. 삼십 년 후에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법 안에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죄를 접하지 않으며, 충실히 떡을 떼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 우리는 번식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소그룹을 해내려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기다리고 있었고 게을렀다. 그리하여 증가는 멈춰 버렸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원칙을 관심해야 할 뿐 아니라 번식의 법칙도 따라야 한다. 불법적으로나 근친상간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낳을 수는 없다. 자녀를 낳아야 하며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방법을 무시하거나 영적인 생명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 주의 회복의 길은 넓고 회복의 장래는 밝다. 나는 주의 회복이 생명의 원칙 아래서 그 제관과 함께 모든 대륙에 퍼지리라고 믿는다. 이것은 주님이 신부를 얻시고 다시 오시기 위한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85-192p 발췌>